

2016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한 한국SOS어린이마을 만나 현재의 모습과 활동을 소개합니다.

보호받지 못한 아이를 위한 사랑의 가정



한국SOS어린이마을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하며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2016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대구SOS어린이마을 정원에 모인 신영규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신부(가운데)와 직원들.

‘어머니’라는 존재는 특별하다. 어느 곳이든 어머니가 있는 곳은 늘 그림고 정겨운 고향처럼 느껴진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이 그런 곳이다. 낳아준 부모가 있지만 여러가지 사정으로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이 마을에서 새로운 어머니와 형제들을 만나 따스한 가족의 정과 사랑을 느끼며 자라난다. 그렇게 한국SOS어린이마을은 60년간 50여 명의 어머니가 1,800여 명의 아이들을 키워냈다.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자립한 후에도 이곳 한국SOS어린이마을을 찾아온다. ‘엄마’하고 부르면 그리운 어머니의 목소리와 따스한 포옹이 반겨주는 우리 집, 한국SOS어린이마을은 1,800명 아이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외로운 아이들을 키워내는 어머니들

“마을의 어머니는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헌신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고등학생까지 5~7명의 아이들과 함께 단독주택에서 보통 가정과 똑같이 생활하죠. 어머니와 다양한 연령대의 형제들이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때문에 일반적인 아동양육시설과는 달리 아이들이 가정이었다는 소속감과 안정감 속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신영규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신부는 “최근 강조되고 있는 가정형 아동보호체계를 일찍부터 실현해 온 것이 우리 SOS어린이마을”이라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의미 있는 대안양육모델이다”라고 강조한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의 시작은 유럽에서부터다. 2차 세계



대구, 순천, 서울의 SOS어린이마을을 표현한 마을 모형.



왼쪽부터 백승지 대구SOS어린이마을 원장, 신영규 한국SOS어린이마을 대표이사 신부, 황민호 한국SOS어린이마을 사무국장.


대전 직후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오스트리아에 SOS어린이 마을이 문을 열었고, 우리나라에는 1963년 오스트리아 출신 선교사 하 마리아 여사가 1963년 대구에 한국SOS어린이마을을 설립했다. SOS는 구조신호가 아닌 라틴어로 ‘사회적 책임을 지는 사회(Societas Socialis)’의 약자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들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전 세계 SOS어린이 마을 중 비유럽권 국가 최초로 설립된 한국SOS어린이마을은 대구에 이어 1981년 순천, 1982년 서울에도 마을을 세워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단란한 가정이 되어 주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아산상 사회봉사상을 수상했다.

SOS어린이마을의 가치가 더욱 확산되도록

한국SOS어린이마을에서 성장해 성공적으로 자립한 아이들이 많다. 교사, 사회복지사, 군인은 물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도 있다. 결혼식에서 혼주석에 마을 어머니를 모시기도 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 손자들을 데리고 찾아오기도 한다. 황민호 한국SOS어린이마을 사무국장은 은퇴한 한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하던 날을 선명히 기억한다. “은퇴하고 따로 생활하시던 어머니가 나이 탓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서 요양원에 입소하시기로 했어요. 집을 떠나는 걸 너무 힘들어하셨는

데, 그 이유가 아이들이 찾아올 곳이 없어지니 안타깝다는 거였어요. 자식을 위한 어머니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마을 어머니들의 헌신으로 이어져 온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지난 2023년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백승지 대구 SOS어린이마을 원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말한다. “20년 전에는 대구SOS어린이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100명 이상이었는데, 현재는 49명밖에 되지 않아요. 숫자는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아이들의 상황은 더 좋지 않습니다. 상당수가 아동학대로 입소한 아이들이고, 그중 70%는 경계선지능, 지적장애,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입니다. 이전과 달리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훨씬 많아진 것이지요. 상담전문인력을 따로 고용하고 마을 법인 산하에 있는 SOS복지센터 등 전문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SOS어린이마을은 최근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적극적인 정책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정부 정책이 가정형 아동보호체계로 전환되면서 법적, 제도적 변화에 SOS어린이마을의 장점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6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한국SOS어린이마을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보호받지 못한 한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  글 편집부